

제107회기 제2차 임원회

11월14-15, 추계워크숍 및 실행위원회, 특별 세미나 확정

제107회 총회(총회장 김의철 목사) 임원회는 지난 10월 22일(토) 오후 3시, 화상으로 제107회기 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결의하였다. 총회서기 배수영목사(글로벌예순교회)가 개회예배를 인도하였다. 장로부총회장 조성윤장로(김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부서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가 시편 37:4절 말씀을 봉독하고 총회장 김의철 목사(송도 가나안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부총회장 김정호 목사(한 소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회의는 의장인 총회장 김의철목사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록서기 유남규목사(어울림교회)가 기도하고 서기 배수영목사의 회원 호명 후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 회의록 낭독 후 수정하여 받고, 상정하여 결의된 사항은 제107회 전체 예산 2억 원을 재정부가 제출한 유인물대로 결의하고, 제107회 연간사



업 및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11월 14일(월) 실행위원회를 소집하되 추계 워크숍과 총회 총동문회기수정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겸하여 열기로 결의하고 부회의록서기 박공서목사(새부전교회)의 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제3학기 교직원회의

학생 모집방안, 후원이사회 구성, 성지연수계획 등 수립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10월 20일(목) 오전11시30분, 대학로 본교 사무실에서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안에 대하여 숙의하고 학칙수정을 비롯해서 학사전반을 검토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원장 임종학 목사(재인교회 원로)가 인도하였다. 이다윗목사(찬양교회)가 기도한 후에 예배서서 5:19~21절을 봉독하고 “갑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서 회무가 진행되었다. 총무과장 정영덕 목사로부터 회계보고를 받

고, 23학년도 졸업예정자와 졸업식장소와 일정을 내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결의하였다. 본교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회 파송이사 외에 평생이사, 후원이사를 추대하여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학생모집을 위하여 총회개혁공보와 중요일간지와 기독일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특별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명 기도원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으며, 총신대학사이버 과정을 활용하여 학부학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학기 중 인턴 십 과정을 병행하



로 하였다. 또한 요르단-이스라엘-빛모섬-그리스-터키로 이어지는 성지연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하고, 총회개혁공보를 통하여 최소 20명, 최대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학칙 일부를 개정하여 학사운영의 현실성을 확보하였다. **참석자 : 원장 임종학 교수, 이사장 윤서구 교수, 교수부장 황호관 교수, 사무총장 박만진 교수, 총무과장 정영덕 목사, 교무과장 이다윗 목사**

전북노회 제174회 정기회

전북노회(노회장 박종운목사)는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소성교회(박준호목사)에서 제174회 정기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홍주일목사(모악교회)의 인도하였다. 회계 김재호장로(한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해수목사(예수촌교회)의 야고보서 2:8-13절 말씀을 봉독하고, 노회장 박종운 목사(전주화명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직전노회장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의에 앞서 제107회 합동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의철목사(송도가나안교회)와 그 일행(서기 배수영목사, 부회의록서기 박공서목사,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의 인사와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로부터 총회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편 곧 이어 노수일 증경은퇴장로(서문교회)의 기도로 제174회 정기회가 속개 되었다. 규칙수정위원회 등의 보고를 마친 뒤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 예배와 폐회선언이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죽림온전에서 가진 노회원진교의 시간은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전북동노회 제174회 정기회

전북동노회(노회장 주상기목사)는 지난 10월11일(화) 오전 11시, 00교회당에서 제174회 정기회를 가졌다. 이날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양기만 목사(00 교회)가 인도하였으며, 회계 이영진 장로가 기도하였다. 서기 이길환 목사(00교회)가 출 2:23-25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주상기 목사가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증경노회장 류현옥목사(동명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에 있었던 준목 인허식은 노회장 주상기 목사가 인도하였다. 부회계 최길홍 장로(평안교회)가 기도하고, 부서기 양정자 목사가 고후3:2-6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낙원교회 김종봉 목사가 “살



리는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노회장 주상기 목사가 인허자 김경렬 백남순 장현주에게 서약을 받고 기도한 후 공포하고 인허증서를 수여한 후에 금상교회 채영구 목사와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가 권면하고 완주교회 김관희 목사의 축도로 인허식을 마쳤다.

총회장 목회서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목회자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풍성하기도 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계절입니다. 먼저 우리는 쓸쓸함보다 풍성함에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늦가을 감나무의 잎새는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 들어내 보이지만 그곳에 붉게 물든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삼여 년간의 지루한 코로나 시대는 우리 교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당 빈 의자를 바라보며 설교를 해야만 했던 가슴 저런 시간들,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권면 한번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도 용기 내어 예배를 지켰다고 나온 성도들조차도 가까이서 대할 수 없는 치명적 거리감에서 오는 차가움, 예배드리기도 어려운데 예배드리는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는 어이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끝나고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해 져 버린 성도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의 짐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현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목회자들이 긴 영적 침체기를 지내으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조차 상실한 채로 앞세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작된 이후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교회가 망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내리막을 걷고 있고, 재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코로나의 발원지가 되어 버린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맹렬한 불같은 아픔의 세력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인간에게는 정치도, 방역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교회가 영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언젠가 끝은 온다. 그날에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올 것이고, 평안을 찾아올 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그 때에 큰 부흥이 올 것을 대비하여 설계 사무실에 최대의 견해를 적용하여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건평 4천 평이 넘는 교회당을 설계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후로 삼 년이 지나자 지금의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준비된 돈도,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과정에서 철근 파동, 시멘트 파동, 자재 값 인상 등, 많은 약재가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힘 잃어버린 교회는 다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안될 이유를 찾으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이유를 찾으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있습니다. 만물이 무르익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큰 보상의 축복이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7-1차 추계워크숍 및 특별세미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노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제107회기 합동총회를 은혜중에 마치고 전국 노회장과 임원, 상비부장, 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동문회까지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15일(화) 오후2:30 접수
- 장소 : 인천 송도가나안교회 (인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34-17)
- 회비 : 각 노회(200,000만원) (숙박 50% 총회지원)
- 행사 : 14일 오후 3시 개회예배  
14일 오후 4시 실행위원회  
14일 오후 4시30분 노회장, 서기, 장로부노회장, 상비부장, 위원회, 워크숍.  
14일 오후 6시 식사  
15일 오전 09시 총동문회 총회  
15일 오전 10시 특별세미나 1, 2부 2강  
15일 정오 12시 중식(노회별 친교) 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교단

총회장 : 김의철 목사

서 기 : 배수영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社 說

포스트 코로나 예배회복이 해법이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교회개혁은 급변으로 505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온 세상의 모든 분야를 놀라게 바꾸어 놓았다. 변화는 항상 있어왔고, 계속될 것이지만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한 급변사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히 교회가 겪은 변화는 가히 산술불가능이라 할만하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일반 교회가 사라졌고, 오천여 교회는 개점휴업상태라고 한다. 대형교단들이 발표하는 교세감소 정도는 역성장 수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런 통계적 변화는 한국교회교세의 약화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회복이 심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복음화를 25%를 자랑하던 한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외적문제에 못지않게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내적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개혁이 시급함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다. 3년에 걸친 비대면 예배가 교회의 새로운 문화처럼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성경말씀이 먹혀들지 않는 형편이 되

어 버렸다. 인구 절벽이 물고 온 유초등부 어린이 교육과 예배의 유명무실함에 이어 지는 연쇄반응으로 나타난 중고등학생부의 약화를 어찌 회복할 것인지 그 묘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마다 열성을 보이던 크리스천 동아리들이 뜨거운 열기를 상실하고 방마다 텅 빈 상태라는데도 역시 무대적이다. 이런 때에 맞이하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무심히 보내기에는 너무도 절박하지 않은가? 이런 때에 새롭게 출발한 개혁대신교단 내에 조응하, 그러나 강력한 도전으로 퍼지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 사랑운동이 그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론일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첫째 강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증거가 예배라는 메시지이다.

예배의 회복! 이것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실천하여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매일 예배당예배를 실천하는 중에 거대한 예배당 신축과 지속적인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가까이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개혁대신교단의 총회장의 폐지지에 귀를 기울이고, 송도 가나안교회를 벤처마킹 할 것을 강력추천 하는 바이다.

개혁대신교단의 성공비결

지난 9월 제107회 합동총회의 감격과 감동이야 아직도 식지 않고 여운이 남아 잔잔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들리는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로 감지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한 쓰라린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짐작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악한 중앙처럼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불신과 우려는 아주 위험 중후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가데스바네아)의 뼈아픈 실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모세의 보병을 받은 12 정탐꾼을 통한 역사적 교훈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불신의 사람들 10인이 보여준 매루기 (신드롬)의 결국,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의 절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승리선언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식구가 되었으므로 결속해야 한다.

그 결속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파자가 믿어 줄 때 합동의 시너지는 무한대로 나타날 것이지만 불신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은 약속의 이행이다. 실천 없는 약속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공약(空約)의 폐단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욕하면서 배우고 닦아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사랑 장을 통해서 배우고 외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게 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오래 참아야 한다. 그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까지 말이다.

전북중부노회 제174회 정기회 성료

전북개혁신학원 대 강당에서; 목사 임직 6명. 준목인허 4명

전북중부노회(노회장 정완득목사)는 지난10월 11일(화) 오전10시,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제174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회무에 앞서 개회예배는 서기 박숙희목사(동산교회)가 인도하였다.

장로부노회장 안영조장로(동산교회)의 기도, 회의록서기 정영덕목사의 성경봉독(말1:27-28)이 있었으며, 노회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가“협력자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공로목사 정진호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속개된 회의는 의장 정완득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절차보고 및 고시부 보고를 받은 후, 곧 이어 준목 인허식 및 목사임직 예식이 있었다.

노회장이 총회 준목고시에 합격한 4명으로부터 인허서약을 받았으며, 중경노회장 박영수목사가 인허를 위한 기도를 하였다. 노회장이 준목 인허 공포와 인허증서를 수여하였다. 인허 받은 4인의 준목을 위하여 중경노회장 김황용목사가 권면하였다.

이어진 목사임직예식은 부서기 박찬섭목사(나눔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부회계 김주연목사(로렐나교회)가 성경봉독(출4:2)을 하였다.

직전노회장 유남규목사(어울림교회)가“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노회장이 6명의 준목으로부터 목사임직서약을 받고, 중경노회장 진상운목사(예벰에셀교회)의 안수기도와 악수례로 이어졌다.

노회장의 목사임직공포가 있는 후에는 임직 받은 목사들에게 각 당회장들이 목사가운



을 임혀 주는 순서를 가졌고, 노회장의 임직패 중정과 임종학 공로목사(재연교회 원로)의 권면, 중경노회장 양형용목사(군산성은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임직자 가족대표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서기 박숙희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에 임직받은 임미향목사(주연교회)의 축도로 임직예식을 마쳤다.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되었으며 정기회를 축하하기 위해 전북중부노회를 방문하신 총회장 김의철 목사와 그 일행(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서기 배수영목사, 부회의록서기 박공서 목사)을 환영하고 총회장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무에서는 감사보고, 회계보고, 총회보고, 전북개혁신학원 보고, 각 시찰회보고, 그리고 각 기관보고를 받았으며, 신 안건처리, 규칙수정, 다음 회의 장소선정, 회의록 채택 등 잔무일체를 임원 및 정치부에 전권위임하기로 하고 노회장 정완득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기도로 폐회예배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목사임직 : 임미향, 차미화, 정예스더, 이재순, 이미숙, 김경택,  
준목인허 : 김하숙, 강옥희, 박경옥, 김선, 전도사고시합격자 : 한진옥, 진성걸, 최용현

남부노회 정기회

남부노회 제50회 정기회가 온들교회당(감리는 목사)에서 있었다.

개회예배 인도자 서기 김다은(온들교회)는 신앙고백후 회록서기 이승찬(동인교회)로 기도케 한 후 노회장 이광무목사(민음선교회)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곡으로 찬양을 하였으며 부노회장 이영종목사(작은예수교회)강왕상11:9~13절을 봉독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열매”란 주제로 중경총회장 임종학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성찬식은 노회장 이광무목사가 집례하고 이영종목사가 특별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쳤다.

회무는 회원을 호명하고 제50회 개회를 선언하고 회계 김태국목사(새생명복음교회)의 회계보고,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보고가



남부노회 임원

있었으며, 임종학목사의 축도로 모든 회의를 마쳤다.

온들교회는 노회원들을 위하여 오찬을 제공하였으며, 박찬섭 목사의 식사기도가 있었다.

전북개혁신학원 가을 소풍행사

교수 · 학우들 간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다.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목사)은 지난 10월10일(월), 오전11시에 가을 소풍을 갖고 교수와 학우들 간에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풍에 앞서 드린 예배는 학우회장 이정민전도사가 인도하였다. 학생처장 정대진목사가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로마서15:1~6절 말씀을 봉독하였다.

학장 이경근목사의“강한 자들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총무처장 진상운목사가 소풍일정 소개하고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소풍행사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린 관계로 본교 옥상에 마련된 실내경기장에서 알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교수와 학우들이 합하여 청군과 백군으로 나뉜 청백전으로 진행되었다. 다



양한 경기 종목들이 재미를 더하여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웃으며 즐긴 하루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학우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고 종일 계속된 우중에도 싱싱한 송어회를 곁들인 오찬은 학우회에서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우들 간의 친목은 물론 교수와 학생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서 학업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서노회 제84회 정기회 성료

양평 꿈꾸는 교회 예배당에서, 고시와 준목인허식도 거행

본 교단산하 경서노회(노회장, 신연식목사)는 지난 10월 11일(화) 오전 11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교단 경서노회 제84회 정기회를 양평소재 꿈꾸는 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여 가을 정기회를 성대하게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이날 정기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요한 목사(송악 관능교회)가 인도하였다.

다함께 신앙고백을 함으로 시작된 예배의 기도는 부노회장 오성원(천안관동교회)목사가 담당하였으며, 회의록 서기 심기석목사(을린 후 찬송가 28장을 부르고 부노회장오성원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회의록서기 심기석목사(이웃교회)가 예배소서3:1~13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신연식 목사는“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예배는 중경노회장 황호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곧 이어 진행된 성찬예식은 직전 노회장 하예성목사(생명줄 동포교회)가 인도하였다.

이날 정기회의 중에는 이현주 전도사(꿈꾸는 교회)가 준목으로 인허되는 일과 1명의 신임회원을 환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노회 고시부(부장 황호관 목사)는 2인의 장로응시청원자를 고시하여 합격시키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4회 정기회의 장소를 제공한 꿈꾸는 교회는 회원들을 성심으로 환영하고 간식은 물론 오찬을 제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노회원 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다른 교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북동노회여전도회 연합회(회장 김정숙 권사)는 지난 10월 4일(화) 오전10시30분, 전주 산마루교회(김병설목사) 예배당에서 제376차 월례회로 모였다.

회장 김정숙권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신앙고백으로 시작되었다. 연합회 감사 김행은 사모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사도행전 6:1~7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산마루교회 김병설목사가 ‘완벽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노회 교역자회 회장 정인직목사가 봉헌 기도



를 하였으며, 총무 유화순권사가 광고한 다음에 김병설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산마루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헤어졌다.

전국 장로연합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 초청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후5시 개회예배 - 11월 5일(토)까지
- 장소 : 인천 송도가나안교회당(김의철 목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34-17)

살롬 !

전국장로연합회 제50회기 정기총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로로서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 성도를 세워가며 교회와 노회, 총회를 섬기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중에 이번 “개혁교단과 대신교단”이 합동을 하여 진일보하게 되었으니 같이 모여 기도하고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었으니 교단내 장로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김 재 호 장로 (010-8653-6162)

서울남노회 94회 정기회 신임원



노회장 김선영 목사

노 회 장	김선영 목사(높은 뜻 세움교회)
부 노 회 장	김만술 목사(새 목장교회)
서 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
부 서 기	박순종 목사(임광사랑교회)
회 의 록 서 기	문만호 목사(양곡제일교회)
부 회의록서기	김문옥 목사(안양중앙장로교회)
회 계	김경호 목사(한빛교회)
부 회 계	조을식 장로(찬양교회)



# 개혁대신 교단의 첫 총회장을 만나다

대담/주필 황호관 목사, 정리/박만진 편집인

지난 제107회기 합동총회에서 개혁대신 교단의 첫 총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총회장 김의철 목사를 만나기 위해 송도 가나안교회를 찾았다. 새로운 예배당 건축공사가 12월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음에도 여유롭게 웃으며 맞아 주심에 감사하며 마주 앉았다. 통합된 교단의 총회장으로 서 임기 내의 단기계획과 꿈꾸고 있는 교단의 내일의 비전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날의 감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대신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개혁교단과 통합을 추진하게 된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아래 이루어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계가 연합하지 아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이탈은 교회의 미래상을 예견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시대에 부합하는 교단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개혁과 대신이 통합을 이루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이견이나 다툼도 없이 마치 양쪽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형진 직전총회장님과 저와의 첫 만남에서 아무 조건 없이 통합하자는데 마음을 모았고, 그 이후 모든 전권위원회 위원들의 통일된 바람이 있었기에 빠른 합동일자리도 마치 오랜 친구가 다시 만나 함께한 것처럼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107회기 총회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통합의 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총회장의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한 회기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임기 내에 꼭 이루고자 하는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하신다면 무엇일까요?

갑작스레 이루어진 일이라서 개인적인 바람은 쟁길 여유가 없었고 평소에 제가 교단을 향하여 꿈꾸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교단이 맑고 아름답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 어떤 분도 사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사님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일은 성장과 안정입니다. 먼저 교단을 어떤 방식으로든 몸집을 좀 더 키워 든든한 교단으로 성장시켜서 대한민국 제3의 장로교단으로 우뚝 서기 위한 초석을 닦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신학교도 세울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목회자 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첫 단추를 깔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단 산하 노회들의 가을 정기회를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신 소감과 함께 노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총회장이자 교단의 대표로서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먼저 저의 노회 방문을 환영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신 모든 노회 노회장님들과 노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노회 순방을 통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뿌리 있는 교단이라는 사실과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동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위에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목회 철학은 무엇이며 평소 늘 마음에 새겨두고 사는 삶의 모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그리고 교단 산하 전국 목회 동역자들에게 목회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도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내 맘대로 안되는 것이 목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 즉 내려놓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 목회자가 죽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이 일하시고, 주관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람들만 있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나를 위하여 일하려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노동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후로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외로이 예배를 드린 지 20년이 되어 보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답이다.”

▶송도 가나안교회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간증을 들려주시지요.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관한 감동스토리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일선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에게 도전이자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세계 선교를 꿈꾸고 춘천에서 가나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10여 년의 훈련과정을 겪은 후 새롭게 시작한 목회인자라 철저히 인본주의를 배척하고 신본주의의 목회를 하려는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없는 초라한 곳에서 저는 매일 두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4, 5년간, 우리 가족과 할머니 몇 사람을 앉혀놓고 매일 예

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제법 부흥되고 교회 내적 많은 축복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경 송도국제도시가 건설된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저곳에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여야 한다는 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인맥도 없는 그곳에 춘천에서 오가면 개척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어서 그냥 가슴에 담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자 2009년 송도에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모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50만 원으로 상가를 빌려 예배를 시작한 이후 변함없이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지 약 4년 만에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고 그렇게 있는 지 4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성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도 없는데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지금의 장소를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가나안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자랑하자면 무엇을 들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교회의 미래비전을 펼쳐 보여주시지요.

송도가나안교회는 돈과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들에게 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지 원세로 시작하여 세부 가나안 랜드를 건설하고 춘천 가나안교회를 건축하고, 현재 건물을 건축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10%의 재정도 준비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들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믿음 없는 분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저는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도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순종만 합니다. 그 결과 저희 교회는 잡음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매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목사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면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한 펜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목회자로서 성령충만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특별한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야망을 버리고 비전(Vision)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날 저는 야망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

인 목회를 하여 편하게 살고 싶고, 멋 부리며 살고 싶어 했지요. 그러다가 호되게 얻어맞고 정신을 차려 보니 목회는 개인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개인적인 여행 한번 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켜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하시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저의 눈치를 보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을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비전너리(Visionary)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것이지요, 과거 저의 취미는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것과 화려한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취미요 선교가 취미가 되었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자랑, 자녀들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숨김없이 털어놓으시지요.

저의 아내는 유능하진 않지만 침묵의 달인입니다. 그 모진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원망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도를 흥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일에 깊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로 인하여 문제가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화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자녀는 남매인데 아들은 목사가 되어 저를 도와 사역을 하고 있고, 딸은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지금은 결혼하여 이집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원, 교단 소속 목회자, 노회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저의 바ibel 내일이 요셉입니다. 저는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원하지 않게 총회장의 중임을 맡았으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총회에 예배의 불길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개체 교회만 부흥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되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가 죽으면 됩니다.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엎드리면 부흥은 분명해 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가 답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사람 모이지 않는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목사님들은 가짜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그 죽은 위에 새생명들을 끌어모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



**김의철목사(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9월27일(화) 제107회 잔무처리 설교  
10월6일(목) 호서대학 방문  
10월11일(화) 전북지역노회 순회인사  
10월13,17일(목) 서울지역노회 순회인사



**박형진목사(직전총회장, 새은혜교회)**  
9월27일(화) 제107회 총회잔무처리  
10월11일(화) 경서노회 참석  
10월11일(화) 이현주준목 인허사 권면



**임종학목사(경경총회장, 재인교회)**  
9월24일(토) 총회신학 강의  
9월27일(화) 제107회 총회잔무처리  
10월6일(목) 호서대학 방문  
10월11일(화) 전북중부노회 참석



**류현목목사(경경총회장, 동명교회)**  
9월 12일(월) 전북동노회 고시부 시험주관  
9월 17일(토) 전북개신회 개강예배 축도  
9월 20일(화) 합동총회 총회장 취임 격려사  
10월 11일(화) 전북동노회 174회 정기회 축도



**황호관목사(경경총회장, 본보사장)**  
9월27일(화) 제107회 총회잔무처리  
10월 6일(목) 호서대학 방문  
10월11일(화) 경서노회 참석  
10월22일(토) 총회신학 강의



**윤서구 목사(경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9월27일(화) 제107회 총회잔무처리  
10월13일(목) 서울동노회 참석  
10월 20일(목) 총회신학 교직원회의  
10월22일(토) 총회신학 강의



**김정호목사(부총회장, 한소망교회)**  
9월17일(화) 제107회 잔무처리  
10월11일(화) 전북노회 참석  
10월20일(목) 전북신학 강의



**배수영목사(서기, 예수글로벌교회)**  
9월27일(화) 제107회 잔무처리  
10월6일(목) 호서대학방문  
10월11일(화) 전북지역노회 인사  
10월13일(목) 경기노회 인사



**이다윗목사(회의록서기, 찬양교회)**  
9월 27일(화) 제107회 잔무처리  
10월17일(월) 서울남노회 참석  
10월20일(목) 총회신학 교직원회



**김선영목사(높은 돛 세움교회)**  
10월17일(월) 서울남노회 94회 노회장 선임



**박만진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9월27일(화) 제107회 총회잔무처리  
10월6일(목) 호서대학방문  
10월11일(화) 전북지역 노회인사  
10월13일(목) 경기노회 설교

##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의철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4,100,000	박 성 욱	2,100,000	최현일	50,000
총회신학교	3,500,000	박경남	4,000,000	이하중	50,000
박 형 진	1,400,000	호서노회	200,000	김해수	50,000
김 의 철	400,000	꿈꾸는교회	400,000	별열교회	350,000
경기 노회	900,000	류현욱	300,000	김종봉	300,000
전북 노회	900,000	김일출	1,000,000	길교회	50,000
전북동노회	900,000	박광식	350,000	김정호	100,000
전북중부노회	450,000	신연식	50,000	강대민	300,000
서울남노회	300,000	박연성	50,000	이경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김진영	350,000	이부교	350,000
경기서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서용진	50,000
전남 노회	300,000	박준배	350,000	권병희	50,000
남부 노회	100,000	권병락	100,000	한마음교회	3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會

改革公報

##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會

改革公報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 미얀마에서 체험한 복음의 능력



김재호 장로  
(전국성로 연합회 회장, ㈜모리아 성구 대표이사, 소망유치원 소망어린이집 이사장)

본인은 오래전부터 평신도 중심의 초 교파 기독교 사역 단체인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 호남지부의 사역 이사로 섬기고 있던 차에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미얀마에서 열린 집중교육 강사로 다녀왔다.

이번 교육은 미얀마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청지기 아카데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성경적 재정훈련이었다. 미얀마는 현재 군부가 통치하고 있어서 정치, 경제가 불안하여 고물가에 시달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여서 소규모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예정된 세미나를 취소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획된 세미나

를 진행하였다.

참석자 중에는 이틀이나 걸려 도착한 전도 사남이 여럿이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회에 걸쳐서 검문검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석한 분들도 여럿이었다. 현재 그들이 품고 있는 복음의 열정은 한국교회 70년대 엑스포로 74의 기적을 이룬 그때를 방불하게 할 정도였다. 참석자 중 한 분의 감동적인 간증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사역하는 중에 라오스로 건너가서 복음 전파라는 소명을 받고 라오스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국경 부근에서 경찰에게 붙들리는 불상사를 당하였고, 경찰은 그에게서 압수한 귀한 성경책 모두를 바다에 던져버려 버렸다.

상한 마음으로 라오스 입국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고 있던 상당량의 성경책을 전해 주는 일로 인하여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가 현재까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간증이었다. 그는 성경적 재정 교육을 마치면 다시 라오스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의식이 살아 있는 시민들이 제조한 사제 폭탄을 기동성이 좋은 오



토바이를 이용, 불특정지역에 불시에 투하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를 막아보려고 군부는 무장군인들을 투입, 불시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검문에 붙음하면 사정없이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이 지금의 미얀마 상황이었다. 전국에 안전지대가 전무한 현실이라니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왔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숙소에서 강의장까지 20여 분을 매일 오갔는데 우리 일행은 단 한 번의 검문을 당했으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도 차창 밖에서 살펴보는 정도에 그쳤으니 그러하다. 기간 내내 한소망교회의 김정호 담임목사님과 기도동역자들,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장하고 있는 제1 청년부의 20여 지체들, 서울과 전주의 사역 이사님들, 대학원 동기들까지 계속 기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위험보다는 감사가 넘쳤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서 순간순간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으며 설령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게 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순교자의 후손 된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을 생각하면 새 힘이 솟았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난관들이 높은 벽 같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런 벽들을 넘고 막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아카데미에 등록한 사람들은 미얀마 신학교에서 현지인 목사 13명, 전도사 35명, 전도인 52명 총 100명이 등록하고 출발하였다.

100명 중, 단 한 명이 확진되었을 뿐 별일이 없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100%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87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를 독자들에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두 사역 단체와 교육내용 및 과정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대표는 서울 사랑의 교회 강팔용 장로가 맡고 있으며, 16명의 이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서울남노회 제94회 정기회와 교역자 모임

본 교단 소속 서울남노회(노회장 김정용 목사)는 지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인천 검단신도시소재 높은 뜻 세움교회(김선영 목사) 예배당에서 제94회 정기회를 모여 현안을 처리하고 교역자 모임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 이다윗 목사(천양교회)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부서기 박순종 목사(임광사랑의교회)가 대표로 기도하였다. 인도자는 제18절을 봉독하였으며, 높은 뜻 세움교회의 성도일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후에 노회장 김정용목사(중울산교회)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직전노회장 강대민 목사(성현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곧 이어 증경노회장 임진철 목사가 기도하고 노회장 김정용 목사가 개회를 선포하였으며, 준비된 절차에 따라 전형위원의 보고대로 발함과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한편 새롭게 가입 신청한 어순옥 목사는 노회의 회원인 이항을 목사의 사모로서 오사카 힐링교회의 담임사역 중이고, 이항을 목사는 근일에 부산에 교회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최상일 선교사는 이번 정기회에서 회원회복 되었으며, 필리핀에서 폭넓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이후의 상비부조직과 보고를 받은 후에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였다. 정기회를 마친 후에는 교역자 모임으로 인천 영종도에서 1박2일 일정을 가졌다.

**\* 신임 노회임원 :** 노회장 김선영 목사(높은 뜻 세움 교회), 부노회장 김만술 목사(새 목정교회), 서기 이다윗 목사(천양교회), 부서기 박순종 목사(임광사랑의교회), 회의록서기 문만호 목사(양곡제일교회), 부회의록서기 김문옥 목사(안양중앙장로교회), 회계 김경호 목사(한빛교회), 부회계 조을식 장로(천양교회)

## 서울동노회 제84회 정기회

서울 동노회(노회장 임용태 목사)는 지난 10월 13일(목) 오전 11시, 안산시 소재 임마누엘 교회(김중화 목사)예배당에서 제84회 정기회를 가졌다. 이날 개회예배에 앞서 노회를 방문한 김의철 총회장으로부터 축하메시지와 함께 예배회복에 관한 당부의 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의 인사 후에 시작된 개회예배는 서기 김중화 목사가 인도하였다.

증경노회장 송찬우목사(은혜교회)가 기도하고, 노회장 임용태 목사가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제84회 정기회는 증경 노회장 송찬우 목사의 기도로 속개 되었으며, 노회장 임용태목사가 임시 채택된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여 나갔다.



서기의 회원호명, 노회장의 개회선언, 절차보고, 회의록낭독, 질서 및 지시위원에 노선제 목사(수정교회)를 선정하고, 서기보고, 회계보고, 각부보고, 총회결과보고 등 절차대로 보고를 받는 등 회무를 진행하였다. 미진한 회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노회를 정화한 후 강원도 춘천 삼악산에서 부부동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14일(금) 산회하였다.

## 동서노회 정기회

본 교단 소속 동서노회(노회장 신장균 목사)는 지난 10월 17일(월) 오전 10시,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노회설립 후 첫 정기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하종 목사가 인도하였다.

노회장 신장균 목사가 삼하 23:1~4절 말씀

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회무는 노회장 신장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준비된 절차에 따라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은 노회장 신장균 목사가, 만찬은 부노회장 이하종 목사가 정성껏 섬김으로 모든 회원들을 흠뻑하게 하였다.

경기노회(노회장 박만진 목사)는 지난 10월 13일(목) 오전 10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한마음교회당(한상진목사)에서 제 199회 정기회를 열고 미국 선교사 파송식 및 준



목 인허식을 거행하는 등 현안을 처리하였다.

제199회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노회서기 박광식목사(꽃밭교회)가 인도하였다. 신앙고백으로 시작된 예배의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박병욱장로(꽃밭교회)가 맡았으며, 회의록서기 조경호목사가 담주1:12~17절을 봉독하였고, 한마음교회 한상진 목사의 주미옥사모(한마음교회)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곡으로 찬양하였다. 설교자 노회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는 “믿음의 분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예배는 한마음교회 원로 문용길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곧이어 박동혁 목사(선한이웃교회)의 인도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박규식 목사가 기도하고 고전11:23~26절을 본문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의 집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류기정장로, 박병욱장로(꽃밭교회)에 의하여 분병과 분잔이 이루어 졌다.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꿈꾸는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노회장 박만진 목사가 의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하였다. 회소채택, 지시, 질서위원 자백, 각종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제199회 정기회는 미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3인의 준목을 인허하는 예식을 겸하게 되어서 정기회의 의의를 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노회의 파송을 받은 미국선교사, 임영호선교사(김영숙사모)와 일본 선교사, 김광현 선교사이며, 이은중, 김광현, 김인중 3인이 준목으로 인허되었다. 한편 회의 중에 총회장 김의철 목사와 그 일행이 방문하여 노회 앞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기도 하였다. 이날 노회를 방문한 인사는 김의철 총회장, 서기 배수영목사, 부회의록서기 박공서 목사이다. 모든 회무를 원만하게 마친 후에 박만진 노회장의 인도로 드러진 폐회예배의 기도는 정용경 목사, 축도는 총회 서기 배수영 목사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박만진 목사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수 4:6~10)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 150여개 민간자격 &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커리어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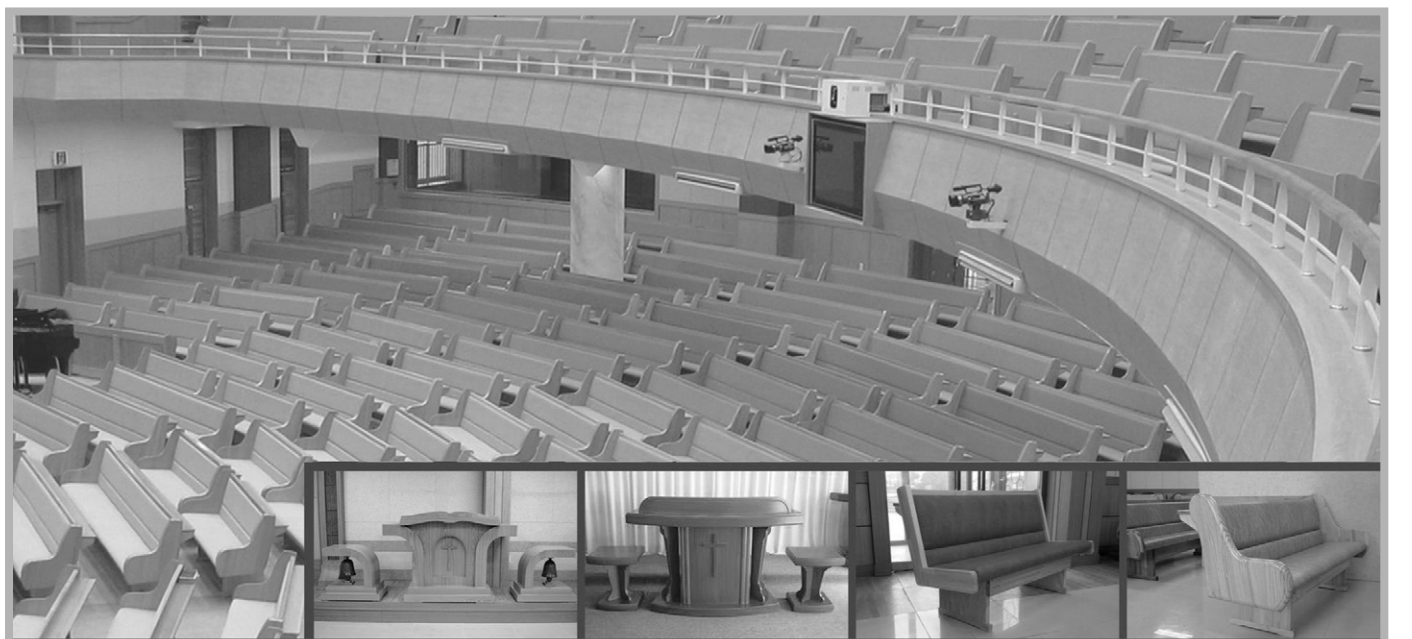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화질 강좌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http://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센터장 박 만 진 |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대표이사 김 재 호 장로  
010-3653-6162  
(본 교단 전북노회 한소망교회 사무)

## (주)모리아성구사

기술특허업체  
품질인증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 사훈

신앙 :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 최선을 다하여  
목표 : 세계선교를 이루자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MORIAH  
www.moriah.kr

서울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공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7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더불어 생각할 正論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우리의 삶은 언뜻 보아도 그 결과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 과정이 아무리 순박하고 철저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 과정은 좀 비열하고 비인간적이어도 결과가 좋으면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냥 시대에 편승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결과보다 선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자. 사울과 다윗은 거의 같은 출발로 인생을 시작한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된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똑같이 겸손했다. 똑같이 처음에는 불품없는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이스라엘을 일으켰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 또한, 드러난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겼다. 자신의 통치에 방해되는 인물의 일 순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쟁심리와 자존심의 대결, 열등감 등으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사용해 버린다. 사울의 삶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의 목적만 성취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살해할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고, 사울에게 자신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도망치면서 인생의 전반부를 거의 써 버렸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의 진보를 위한 귀중한 시간으로 여겼다. 다윗 또한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속에 고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도와 통곡, 말씀으로 매 순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된

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원망치도 않았다. 사울의 유일한 손자인 므비보셋을 환대하였다. 다윗의 마지막은 사울처럼 전장에서 죽는 비참한 죽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며 왕위계승 문제가 끊임없는 관심을 끌게 되면서, 정론 분열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쿠데타 아닌가? 다윗의 때에는 아니었지만, 결국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분열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나,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에서 사울과는 차별된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치중된 삶을 사는 듯하다.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만은 축각을 세운다.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고사를 치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우리 삶에서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중요한 한 가지는 오로지 결과인 듯하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면, 첫 느낌은 반가움이다. 그러나 그 반가움은 곧 지나가 버리고, 현재, 서로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결국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 돌아오기 일쑤이다. 우리가 어떤 시아를 가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이 옳다 하고 지지한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어떤 지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삶 정도는 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진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지금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초라함과 화려함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현재 상태를 유일하게 Check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나의 현재 삶 속에 얼마나 빈번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느냐가 관건이 된다. 사도바울의 멋진 고백을 한 번 상기해보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치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립보 3:12절)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개혁대신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에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차와 과정을 바로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중경총회장, 본보 사장)

종교개혁자들은 다섯 가지<오직>을 개혁의 모토로 삼았다. <오직>이라는 말은 라틴어 솔라(Sola)의 번역이다.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솔투스’(Solus)나 ‘솔리’(Soli)가 되기도 한다. 505주년 종교개혁의 달에 개혁의 오대 모토를 생각한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다고 중세 가톨릭은 주장하고 가르쳤다. 성경 해석권, 전통 해석권, 교부 해석권, 종교회의해석권, 심지어 교리를 만들어내는 권리까지 모두 교회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이 최고 권위이다. 루

초청칼럼



문용길 목사  
(한아름교회 원로)

우리인 고맙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여 지겨워할 겨를도 없이 일 년을 보낸다. 여유 있게 계절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함께한다는 자부심 가진 사람 말고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으나 여유 있는 노인네처럼 인생살기인 이 세월을 잘 만들어가지 못하면 한 마디로 팽일수 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과 할 일을 확실히 구별하여 남은 인생을 구분하고, 남은 시간을 조정하여 살아가려면 가을 단풍에 감히 봄꽃을 비교할 수 있으랴! 봄꽃도 화려해서 꽃 속에 파묻혀서 꽃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터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고 말했다.

둘째, 솔라 피데(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이는 성경의 핵심진리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신다고 약속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셋째, ‘솔라 그라티아’(Sola Gratia),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 믿음이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일까? 엡2: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유 의지론자들은 하나님이 50%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50%의 자유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구원받는 일에 인간이 기

종교개혁의 오대 모토

여할 여지가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마틴 부처와 같은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오직 은혜로 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도록 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믿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요한1:12~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넷째, ‘솔투스 크리스투스’(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특히 사제들이 집례 하는 7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다.

사제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7성례라는 정해진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집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7성례에 매일 참여하고 집례 해 봐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올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 사제가 끼어들 권한도, 권리도 없

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다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의 의미이다. 아멘

다섯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응당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황이나 다른 사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 누구라도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고 거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 했다고 구원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교회개혁의 핵심 5대 ‘솔라’를 굳게 붙들고, 이 원리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도색잡지를 펼쳐 보고 있다면 승객들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도색잡지를 펼쳐보고 있더니 부끄럼지도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외면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문에 싸가지고 다닌다. 성경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봄꽃보다 가을의 단풍

있지만 가을 단풍과는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 다형이다. 우리는 봄에 겨울을 이겨낸 승리감과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 대한 풍요로운 환상을 발견한다.

그리고 가을에는 마치 한 가지 톤으로만 그려낸 풍경화처럼 지난 과거에 대한 금지와 자랑고픈 자부심을 만끽한다. 그리고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를 인생이지만 전혀 동요 없는 든직한 석양화(夕陽畵) 같아서 좋다. 마지막 최선을 다해 그려진 굵고, 한 가지 톤만의 최후의 작품 같은 느낌이라서 더욱 좋을 게다. 살아온 인생을 품은 듯한 그 풍성한 이미지가 묵직한 한 권의 철학 서적 같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 태양의 일출보다는 저녁노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봄꽃 그 찬란한 색깔과 향기도 좋지만 역시 하루 중 최고의 그림은 저녁노을과 비교할 수 없다는 다중의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침, 동녘에 어둠을 뚫고 위로 뜨겁게 솟는 일출의 광경은 희망찬 인생의 청년기 같은 감동이라서 그야말로 힘이 솟는다. 이런 벅찬 느낌은 일출의 태양만이 갖는 고유한 특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상해 보라, 어둠

보다 더 강한 찬란한 정오 햇살의 기운을 서서히 꺾으면서 저녁 그 붉은 황금색으로 색깔하여 태양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 자부심에 어찌 아침 햇살을 감히 앞세우랴!

창조주께서는 서산으로 기우는 노을을 보이며 이런 교훈을 보여주시리라.

“너희 인생도 이와 같으리니 희망을 꿈꾸는 기대만으로 호기 있게 인생을 펼쳤으되 비록 잘 보여주진 못했을 지라도, 열심히 기쁘게, 아니 미친 듯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서 석양 노을처럼 붉은 톤으로 칠해놓은 그림이라면 지난날의 풍요로운 인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니 깨닫는 대로 마음에 새기라.”

그림을 확대해서 계절로 자리를 옮겨보자. 이른 아침부터 출근이 끝나거나, 농부가 일찍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난 후 아침상을 받을 때까지는 봄이요, 잠깐 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들로 나가 정신없이 땀 흘리며 일하다가 점심 밥상을 받고 난 후 오수를 잠시 즐기다 껌 짹 놀라 눈을 떠 때까 서산에 걸릴 때까지 일하고 대충 마무리한 후 발길을 집으로 향할 그 시간은 여름철의 마지막 모습이요, 그 시간은 바로 가

을 서늘한 기운이 시작되는 계절 가을이라면, 겨울은 저녁 먹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지난 하루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나누다 깊은 잠에 빠지는 저녁, 밤의 시간은 겨울이라 생각해보니 그림듯하다.

폭 선 두 입어날 때 기지개하고 사자가 광활한 들판에서 표호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내듯 아침이나 봄이 배푸는 풍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측면에서 좋으나 뜨거운 태양을 등에 지고 땀 흘리며 모든 생물의 성장을 돕다가 그 후식의 기쁨을 저녁노을로 나타내는 철학적이요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풍요로운 계절만큼 우리를 보람 있게 이끌어주는 가을을 보여주는 듯 지난 인생을 풍요롭게 전개하는 저녁 석양을 가을 단풍에 비교하면 저녁노을이나 가을 단풍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역시 어느새 봄여름 보내고 가을 그 것도 늦가을을 맞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인생 시점에 분명한 시간인 점을 찍기가 쉽지 않다. 하기가 누가 그 점을 찍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저녁노을은 명확히 우리의 저녁 인생을 보여주니 우리 인생이 마치 가을 단풍 같은 마지막 모습이기를 소원해 본다.

대신 5개노회 예정 일정과 장소

1.경인중앙노회

노회장 이규천(010-3701-4507)  
서 기 이성용(010-3307-9017)  
\* 노회 예정 일시 : 2022. 11. 8(화) 오전 10시  
\* 노회 예정 장소 : 언덕위에교회(이성용 목사 시무)

2.경안노회

노회장 김영식(010-9160-8408)  
서 기 안영희(010-8345-8000)  
\* 노회 예정 일시 : 2022. 11. 8(화) 오전 10시  
\* 노회 예정 장소 : 죽주산성교회(김영식 목사 시무)

3.서경노회

노회장 김의철(010-2247-8388)  
서 기 배수영(010-3088-0191)  
\* 노회 예정 일시 : 2022. 11. 10(목) 오전 10시  
\* 노회 예정 장소 : 송도가나안교회(김의철 목사 시무)

4.제일노회

노회장 조대현 목사(010-8331-7177)  
서 기 이병곤 목사(010-3856-0220)  
\* 노회 예정 일시 : 2022. 11. 8(화) 오전 10시  
\* 노회 예정 장소 : 안디옥교회(조대현 목사 시무)

5.영남노회

노회장 김재룡(010-9801-5386)  
서 기 공성희(010-9691-8668)  
\* 노회 예정 일시 : 2022. 11. 8(화) 오전 10시  
\* 노회 예정 장소 : 대한기도원교회(공성희 목사 시무)

은퇴 인사 올립니다



박경남 목사

서울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 중심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노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제199회 정기회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정년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도 편달해 주신 개혁대신 교단의 선배님!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하여 주신 동역자님! 은퇴하면서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인사드림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헤량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은퇴 인사 올립니다.

2022년 10월 23일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배상



재 언 긍정적 삶의 자세



김양섭 목사 (동국교회)

갈릴리에서도 디베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 큰 무리들이 갈릴리호 들녘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다. 빌립은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빌립에게서 듣고자 한 것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다. 한편 이때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하였다. 그 때에 예수님께 온 무리의 수는 어린 아이와 부녀자를 제외한 약 오천쯤 되었다고 증거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수와 이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돈과 비교해서 한 아이의 아주 작은 소유의 가치, 빌립의 태도와 유월절에 있다. 그리고 먹고 난 나머지 여분 또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해결책을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함이었다. 질문자의 의도와 대답자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했을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는 어떠한가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한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긍정과 부정,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으로 대별된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자세와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무리를 둔 이백 데나리온에 대입하여 해

결하는 것이 과연 최상일까? 그렇지 않으면 한아이의 점심이라는 소량에 대입하여 해결할까? 이백 데나리온이 되는 큰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한아이의 점심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를 가진 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 주위에는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는 미디어나 선전문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매체들은 결핍, 불만, 고통, 판단의 삶에 대하여 비판적인 마음 상태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삶과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 메시지로 전환함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도록 선한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사람의 머리에는 하루 평균 약 6만개의 생각들이 마음과 머릿속을 드나들고 있다고 한다.

이 많은 생각 중 95%는 전날의 생각과 똑같다. 6만개의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아울러 불평과 불만이 매일 반복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반사적인 생각들이 나의 신념이 되고 나의 말이 되며 결국 나와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매일 나의 생각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사실, 부정적이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자는 말이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질 거야! 전날과 똑같이 95%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될 것이기에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자. 합동총회 후에 하다가 되어 더욱 힘써서 추진해야 할 주의일이 많다.

우리의 현실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제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나아가 한다. 이제 협업과 공존이 매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떨어져 있던 동료들이 서로 뭉쳐 하나로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소통은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소통부재라는 두꺼운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모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도 중요하지만 열은 더 중요하다. 하나의 일도 부지런히 하지만 함께 공존하고 협업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부디 총회의 합동이 교단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길 소원한다.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나호에서 이어짐)

“그 등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6-17). 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원리를 제시하신 것이다(롬 2:6).

그처럼 좋은 낙원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담에게 행동의 절제를 요구하신 것이다. 순종의 내용인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조직신학



유정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인간론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인간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 실례로 행동심리학자인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는 것은 범주상의 과오(Category-mistake)이며 마음 또는 영혼이란 단순히 육체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영혼의 존재조차 부인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영혼의 존재는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은 기계 속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비평하였다.

반면 르네 데카르트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였으나 영과 혼을 동일시하면서 인간 영혼의 실체는 의식 기능, 지성 또는 이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신학계에서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 혹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죽자완전영감설(verbal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12)

의 생각, 믿음, 지식에 있어서 우선권과 주권을 갖고서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서 창조하였으며, 생육하고 번영하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하셨다(창 1:28).

하나님의 행상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이란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다. 아담이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였기에, 그가 수행할 최고의 임무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었다. 아담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과 매우 유사하다. 아담은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 도덕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위를 부여받았지만, 이 첫 번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무한정하거나, 무작정 제멋대로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계시와 함께 주어졌다. 아담의 원죄는 인간 본성의 타락을 의미하며, 오염되며 부패한 도덕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오경

에서만 85회나 반복되어진다.

아담은 타락 후에 930년을 살면서 후손들의 번성을 목격했고 죽음을 맞이했다(창 5:5).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사탄에게 현혹당하여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고 파멸했다.

아담의 모든 행위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의미와 구원론적인 목표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아담의 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주어질 종말적인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가 초래한 결과는 참담한 죽음이었다(고전 15:22, 롬 5:14).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장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

창세전에 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들과 요구를 나타내 보이셨다(롬 1:19).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알게 하셨다(롬 1:20).

“저는 율법을 들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어떤 사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양심에다가 일반적인 계시로서 새겨놓았다(롬 2:15). 모든 인류는 동일한 한 가지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

다. 양심에 새겨진 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이 다시 특별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람의 양심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양심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롬 10:5)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이다.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설명한 요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롬 2:13).

하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의 대조적 제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담처럼,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율법의 기준을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

인간 이해하기 13.

plenary inspiration theory)을 수용할 때 인간의 본질은 영과 혼이라는 비물질적 요소와 육이라는 물질 요소로 비교 설명할 수 있으나 분리 설명할 때는 영/혼을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나 호에서는 물질적 요소인 육체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는 비물질적 부분인 영과 혼을 나누어 영(nous)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먼저 영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하자면 첫째는 선재설(Preexistence Theory)이다. 인간의 영은 영원한 실체로 인간에 의해 창조되거나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모에게서 출생하기 전에 어디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론이다. 이는 이상주의의 한 이론으로 영혼을 자연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킨 결과 생겨난 가설로 이미 존재하는 영혼들이 이상의 세계 어딘가에 저장된 상태로 있다고 믿는다. 이를 주장 학자들은 플라톤, 필로, 오리겐 등의 헬라 철학자들이며 나아가 칸트, 밀러, 그리고 에드워드 비처 등의 청교도 신학자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Ex nihilo 창조설, 즉 무에서 유의 창조설과 아담의 생물학적 조상론과도 상반될 뿐 아니라 죄론, 구원론 등과도 상반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창조설 (Creationism)이다. 인간의 영은 각 개인이 임신하는 즉시 혹은 출생 시 호흡과 동시에, 아니면 임신 중 그 중간 어느 지점

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영혼을 창조하여 육체와 연합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인간들은 육체만 출생시킬 수 있고 영원한 실체인 영혼은 하나님만이 생산하실 수 있으며 부모와 상관없이 출생하는 특별히 뛰어난 어린이들의 재능이나 개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결과라고 한다.

이는 헬라철학의 이원론적 개념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선재설을 재정의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현 장로교에서 지배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칼빈주의 신학에서 수용) 인간의 완전 타락을 말하는 성경과 모순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타락한 영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인간의 구원은 육체만이라는 구도가 성립되므로 중생의 교리는 설명하지 못하고 칭의의 교리만 설명하게 된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펠라기우스, 제롬, 그리고 별코프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수용할 경우 부모는 자녀의 육체만을 생산하게 되며 기독교 신학 중 죄론 및 기독교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서와 상반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어거스틴이 완전 타락설을 주장한 이래 성경에 가까운 이론인 출생설(Traducianism)이다. 영혼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는 각기 인간의 부모에게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출생한다는 이론이다. 부모의 자녀 생산은 육체, 영, 혼을 포함하는데 이는 “레위

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히7:10)”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영혼으로 출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 도덕성 및 영성의 유전은 역사적으로 증거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이므로(행17:26)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전체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완전타락설)는 결론이 나오므로 성서적 기록론, 죄론, 구원론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출생한 영은 육체나 육체의 생명 능력에 의해 부여된 요소로 지정을 지닌다. 즉 영은 감정의 근원(창 41:8, 왕상 21:5, 왕하 19:7, 겔 3:14)이며 의지력의 원천(잠 16:32)이며 지성의 원천(욥 32:8)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옮겨 다스리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큰 업적을 세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생하기 이전 인간들의 영은 죽은 상태로 출생한 다(엡2:1-5). 바울이 에베소서 2:1-5에서 지적하고 있는 “허물과 죄”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직간접으로 유전 받은 죄과와 죄의 성품 그리고 본질적인 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은 사탄을 따라 풍습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롬 5:12)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승도가나안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9:00, 2부 11:00 주 일 석 양 : 1부 4:30, 2부 7:3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김 의 철 목사</div><div>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운로 30번길 34-17 전화 010-2247- 8388</div></div>	<div><div>성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11:00, 저녁 5:00 수 요 일 밤 : 7:30 금 요 심 야 : 9:00</div></div></div><div>담임 강 대 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	<div><div>덕소제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 요 일 밤 : 7:30 금 요 심 야 : 9:00</div></div></div><div>담임 박 만 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	<div><div>평안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1부 11:00, 오후 3:30 수 요 일 밤 : 7:30 구 역 예배 (금): 오후 7:30</div></div></div><div>담임 이 경 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	<div><div>광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양 정 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div></div>
<div><div>모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05:00 주 일 : 오전 11:00, 오후 7:3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홍 주 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	<div><div>재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9:00, 2부 11:00 주 일 석 양 : 1부 4:30, 2부 7:3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임 중 학 목사</div><div>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div></div>	<div><div>꿈꾸는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11:00, 오후 2:00 수 요 일 밤 : 7:00 금 요 일 밤 : 9:00</div></div></div><div>담임 황 호 관 목사</div><div>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div></div>	<div><div>남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1부 11:00, 오후 2:00 수 요 일 밤 : 7:00 금 요 철 야 : 9:00</div></div></div><div>담임 최 갑 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div></div>	<div><div>낙원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05:00 주 일 : 1부 11:00, 오후 2:00 수 요 일 밤 : 7:00 금 요 일 밤 : 9:00</div></div></div><div>담임 김 중 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동 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
<div><div>화평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기도 : 4:30 주 일 오전 : 11:00 주 일 오후 : 2:00 수 요 일 밤 : 7:30 금 요 심 야 : 오후 9:00</div></div></div><div>담임 박 중 윤 목사</div><div>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div></div>	<div><div>새목장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1부 11:00, 오후 2:00 수 요 일 밤 : 7:00 금 요 심 야 : 9:00</div></div></div><div>담임 김 만 술 목사</div><div>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암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div></div>	<div><div>중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 오전 10:30, 오후 1:0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박 경 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원현동, 일산원브레이크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div></div>	<div><div>벤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9:00, 2부 11:00 주 일 석 양 : 1부 4:30, 2부 7:3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박 성 옥 목사</div><div>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div></div>	<div><div>한빛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 번 : 5:00 주 일 낮 : 1부 9:00, 2부 11:00 주 일 석 양 : 1부 4:30, 2부 7:30 수 요 일 밤 : 7:30</div></div></div><div>담임 임 용 태 목사</div><div>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



성경칼럼

구워삶아! (짜리, 바살)



한상진 목사  
(한바움교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경대로 먹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워서 먹는 것이고(출애굽기), 또 하나는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신명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요리 방식입니다. 원문도 ‘굽는다.’는 ‘짜리’ ‘삶는다.’는 말은 ‘바살’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은 삶아 먹어야 할까요, 구워 먹어야 할까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는 고기를 삶아(바살) 먹지 말고, 구워(짜리)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짜리)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바살)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짜리)먹고”(출12: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삶아(바살)먹는 것도 허용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바살)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신16:7)하십니다. 개역개정성경은 여기서 ‘바살’을 ‘구워’로 잘못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원문 ‘바살’은 ‘삶아’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공동번역만 이 부분을 ‘삶아’라고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신명기 16:7절은 “삶아 먹으라.”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을 요리하는 방법은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명령에 의하면 ‘구워’먹는 것도 가능하고, ‘삶아’먹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삶는다’는 단어 ‘바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신 14:21, 16:7) 둘 다 삶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살지(바살) 말지니라.”(신14:21).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의 규례를 주신 이후 거의 8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다 왕국의 요시아 임금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대하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바살)그 나머지 성물은 술과 기름과 냄비에 삶아(바살)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대하 35:13)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역성경들은 ‘바살’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

나 대하35:13절은 앞뒤의 단어가 똑같이 ‘바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삶아’로 번역해야 합니다. 성경번역에 있어서 ‘구워’와 ‘삶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말씀 때문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짜리)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바살)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짜리)먹고”(출12:8~9). 여기에서 두 단어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처음 유월절명령을 주실 때는 분명히 ‘바살’하지 말고 ‘짜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아’ 말고 ‘구워’ 먹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 하신 것입니다(not sodden but roast).

그런데 이것을 훗날 신명기에서 삶는 것 즉 ‘바살’까지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시아 임금이 발견한 율법 책이 출애굽기였다면 그들은 고기를 구워(짜리)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발견한 율법 책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규례대로 고기를 삶아(바살)먹은 것입니다.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완벽하게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성경말씀 신명기를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연구했겠습니까? 여선지자 홀다에게 찾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요시아 임금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요시아 임금은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 두루마리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한 책이 신명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였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워서’ 먹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요리하는 방법은 굽거나(짜리) 삶거나(바살)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말 ‘구워삶는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워삶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편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굽는 것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삶는 것은 물에 넣고 팔팔 끓이는 것이니, 불과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굽는 것과 삶는 것은 전혀 다른 요리방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자기편으로 만들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구워삶아’ 결국은 상대방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시간 시간마다 말씀으로 ‘구워삶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워삶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바쳐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팔 끓여 폭 삶아 주시옵소서!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종울산교회 담임)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루 앞두고 서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성념에 잠겼다. “내게 여호수아처럼 저 태양을 두 시간만 멈추게 할 힘이 있다면...”

나폴레옹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그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맑은 날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랑하는 포병은 맑고 밝은 대낮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흐린 날씨에서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해는 어김없이 서산으로 기울고 말았다. 드디어 다음날 전투가 시작됐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치고 소나기가 퍼부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변했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포병은 진흙탕에 박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가 하늘을 쏘아보았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권세를 무너뜨린 워터루 전투다.

칼럼



부회의록서기 박공서 목사  
(새부천교회 담임)



이 사진을 보고 누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총을 겨누는 군인이 악인이고 평상복을 입은 남성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우라.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자연재앙이 밀어닥쳤다. 파키스탄, 이탈리아, 호주, 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대한민국과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의 위력은 무기력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연케 해주었다.

그런데 자연의 위력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영웅이었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이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욥1:1).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거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체험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쳤다. 욥에게는 열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형제의 생일잔치에 한 집에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무

너뜨림으로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열 명의 자녀들이 몰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재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고 남편 욥을 저주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차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입술로 범죄 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지만 욥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에게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용을 말씀해주셨다.

특히 바다의 물을 끌어올려서 비를 내리고 바람의 길을 열어 태풍을 일으키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온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된다.

이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즉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이 티끌과 재, 곧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것이다. 온 세상을 삼킬 듯 밀려오던 태풍과 홍수도 진정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고 어느덧 산천은 곱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고, 곳곳마다 가을 축제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상처난 자연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기 위해 때로는 찢으시다가 싸매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러가 하면 사사시절 때를 따라 산천을 각양각색으로 단장시키시어 상처난 인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여름 지구촌을 덮쳤던 자연의 재앙들을 되새기면서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며 철따라 새 옷을 갈아입히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한다.

하나님과 대 자연 앞에 선 당신의 존재를 느껴보십니까?그마음으로 오늘날 하루를 살아감이어떨까요?

성경적 세계관 바로 알기

하지만 전혀 반대이다. 진실은 이렇다. 1968년 AP통신 종군기자 에디 애덤스는 베트남 파전 후 전쟁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장한 베트남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장면을 찍어두었다. 그것이 이사진이다.

사진은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전쟁의 참혹상을 생생하게 담은 그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민간인은 전쟁이 낳은 희생양으로 분류됐고, 동정론이 일었다.

무장한 베트남 군인이 재판 과정 없이 처형한 사실에 대해 여론이 들끓었고, 에디 애덤스는 Pulitzer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종군기자가 됐다. 그러나 해당 처형 장면의 진실은 에디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지난 1968년 사진을 찍은 에디는 처형 장면이 담긴 필름을 AP통신 보도국에 보내고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기다리는 중, 베트남 시민으로부터 죽은 민간인은 처형 받아야 마땅한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사진 속 무장 군인은 신망이 두텁던 베트남

의 경찰청장(구엔 곡 로안)이었고, 총살당한 남자는 베트남공군의 악명 높은 암살부대 대장 반 램이었던 것이다.

그는 무고한 여성 34명을 강간한 후 살해한 죄목으로 붙잡혔던 것이다. 이후 에디는 AP 본부에 정정기사를 요구했지만, 본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주지 않았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료, 구엔 곡 로안은 남베트남 패망과 동시 미국으로 이주 했다. 버지니아 주에 정착한 구엔 곡 로안은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이미 악인으로 낙인찍혀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결국 미국정부는 구엔에게 거주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에디는 평생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지만, 자신이 쌓아온 사진 기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아 쉽게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구엔이 1998년 암으로 사망했고, 에디는 2001년 루게릭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에디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이공식 처형’의 실상을 모두 밝혔고, 사망한 구엔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에디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구엔은 총으로 악한 살인법을 죽였지만,

나는 카메라로 무고한 구엔을 죽였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 이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철학자 칸트이다.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실체가 무엇이야?’(What is real?)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세계관은 단순한 학문이나 이론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흑암으로 가느냐? 빛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의미치료를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자아(self)를 찾는 것(정육적인 삶의 추구)이 아니라 의미(meaning=logos)를 찾는 것’이라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당신은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금식하는가? 이것에 대한 실체가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계속)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정완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전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8:00</div></div></div><div>담임 김양섭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	<div><div>높은뜻세움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예배: 1부 9:00, 2부 11:00 주일 밤 예배: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상가내 전화 010-2301-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7:30 구약예배(금):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창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종울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1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한마음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div></div></div><div>담임 한상진 목사</div><div>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자길 42 전화 010-7676-6891</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안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 신·편입생 모집요강

##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교직원 일동



총회장  
김의철 목사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개혁신학연구원 사이버대학 모집

### 1. 모집

수시모집

### 2. 수업장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 3. 문 의 처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4. 후원통장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 윤서구 목사  
원 장 : 임종학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